

우리는 좀 더 자주 마주치고 만나야 한다.

-정록 <2012 노숙인추모제 공동기획단, 인권운동사랑방>

해마다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이면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가 열립니다. 작년에 처음 진행했던 생애사 인터뷰를 정리해서, 추모제 날 서울역에 전시했을 때, '홍**'(38세)라고 썼음에도 함께 생활했던 거리 노숙인들은 전시물을 보면서 누구인지 다 알아보고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함께 하던 동료조차 그의 죽음을 알 수 없는 사람들, 한 동안 보이지 않으면 하기 싫은 추측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노숙인들입니다. 추모제는 그렇게 쓸쓸한 죽음을 맞는 노숙인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행사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영정사진 하나 구하지 못하고, 빈 액자에 이름 역시 감춰야 했던 노숙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진 한 장 갖지 못하고, 죽어서도 이름을 감춰야 하는 멸시에 시달리는 게 노숙인들의 현실이라면, 적어도 추모제를 준비하는 저희들은 그 분들의 삶을 좀 더 이해하고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노숙인 생애사 인터뷰는 시작되었습니다.

노숙인 생애사 인터뷰에서, '노숙'(거리를 포함해 쪽방, 쉼터,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객관적 조건' 속에서 '당사자'가 겪

었음직한 경험과 감정들, 그리고 '노숙'과는 별도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희망, 계획, 좌절, 냉소와 같은 모습들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저항, 타협, 굴복과 같은 나름의 전략을 실행하면서 살게 됩니다. 노숙인들에게는 그런 주어진 조건이 너무나 가혹할 따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노숙인들을 자신과 동일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전혀 다른 존재로 생각하고 공감하기보다 혐오하기 일쑤입니다. 생애사 인터뷰가 다른 이들에게 노숙인들의 '삶'을 볼 수 있는 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역시 꿈이 너무 컸던 걸까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었기에, 오로지 주변인들의 이야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인터뷰에 나섰던 몇몇은 인터뷰를 통해서 쪽방, 노숙인 시설 등을 처음 접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과정은 훨씬 많은 시간과 경험을 나눌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편 노숙 이후에 그 분들이 맺은 관계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빈약했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환경에 놓인 이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배려하기 이전에 자신부터 생존! 해야 했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시 자존감이 떨어질 때 친구관계, 가족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망을 회피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닐까 짐작할 뿐입니다. 가난이 단지 물질적 가난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 멸시와 차별의 극한에서 살다간 노숙인분들의 삶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이의 생애를 이해한다는 것, 최소한의 공통 감각과 경험이 없다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했던 저희들을 포함해 우리 모두, 노숙인들과 좀 더 자주 마주치고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역에서, 을지로 지하도에서 마주쳐도 마주치지 않은 것처럼 지나가는 것 말고요.

안타까움에 대한 무게

-양주연 <2012 노숙인추모제 공동기획단, 대학생>

영등포역으로 향하는 내내 발걸음이 무거웠다. 내 생애 낯선 장소에서 낯선 인물들을 만나러 갈 때 이만큼 긴장했던 적이 있었던가. (면접시험을 제외하고 말이다.) 간혹 긴장감들은 이런식으로 되돌아오곤 했다. 지금 내 신발이 너무 편안해보이진 않을까? 혹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따뜻해보이진 않을까? 12월 한 겨울, 영등포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이런 새삼스런 고민들을 하며 싸구려 어그부츠와 두꺼운 패딩잠바를 입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긴장감 안에는 약간의 두려움까지도 섞여있는 것 같았다. 나는 거리에서 죽은 노숙인의 주변인들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다.

그들의 삶을 대할 때 나의 태도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해, 내 일상 속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내가 익숙한 시간 속에는 그들을 동정하고 연민해야만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윤리의식이 고요히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동정과 연민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때론 누군가를 뜨겁게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시선에만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그 시선만으로는 결국 노숙인들의 상황들은 하나도 나아질 수 없다. 그들은 사는 내내 마음씨 좋은 어느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봉사받고 공양받으며 익숙해져갈 뿐이다. 내가 그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은 것 역시 단순히 그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나는 왜 그들의 이야기를 찾아 나서게 된 걸까.

영등포역에 도착해 쪽방촌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을 걸었다. 벽에는 어지럽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지 알 수 없는 노숙인들의 줄 행렬이 길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때마침 시간이 어느 교회로부터의 저녁배식 시간이었다. 길과 함께 늘어서 있던 그들의 얼굴은 모두 달랐지만 같았다. 다르면서도 같은 얼굴들을 하며 그들과 시선을 마주쳤다. 역시, 내 안에 계속해서 맴돌던 긴장감이 툭 튀어나왔다. 그들도 그것을 눈치챘을까.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나는 그들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얼굴이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 남자는 내가 처음으로 듣게 된 이야기이자 올해 돌아가신 노숙인이다. 영등포역 근처에서 이 남자에게 쪽방을 월세로 내주었다는 조그만 슈퍼가게 주인아주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故 장*수씨는 1년하고도 몇 개월 전, 어린이날 이 곳으로 왔다. 슈퍼에 술을 사러 들렀던 날 무심코 던진 "어디서 사요?"라는 아주머니의 말에 "4층 산다"라는 말과 함께 "그런데 다리가 너무 아파 거기까지 못 올라가겠다"는 말도 돌아왔다. 그 뒤 곧이어 슈퍼와 연결되어 있는 1층 쪽방으로 몸을 옮겨오게 되었다. 아주머니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한다.

고인은 황달이 심해지고 술로 인해 몸이 급격하게 망가져 걸어 다닐 수 없기 직전까지 동사무소로 하루 한 두 시간씩 폐품 분리수거를 하러 다니셨다. 그 외 자신의 방에 있을 때에는 거의 매일을 술로 하루를 보냈는데 그 양은 1~2병 정도로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드셨다고 한다. 술자리에서 있

었던 일들 중 아주머니가 기억하시는 몇 가지를 듣게 되었다. 그는 술자리마다 입버릇처럼 본인이 해병대 몇 기 출신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 그 말 때문에 자주 소란이 나곤 했는데 이유인즉슨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주변 노숙인 동료 분들이 키가 작고 해병대처럼 보이지 않는 그의 말을 못 믿겠다며 무시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랬을 때에도 그는 크게 항의하거나 소란을 키우지 않았다고 한다. 그저 그런 동료들의 시비까지도 조용히 듣다가 방으로 돌아가곤 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그의 별명은 '부처'였다.

또 다른 그의 별명은 '찰흙'이었다. 그가 마치 찰흙으로 막 붙여놓은 것 마냥 눈, 코, 입이 두루뭉술하고 목도 짧다고 하여 주변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었다. '부처'와 '찰흙'. 그가 노숙을 하기 전의 별명들도 같았을까? 그 전의 시간들이 궁금했지만 아무래도 노숙 이후 알게 된 슈퍼 아주머니에게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잘 털어놓지 않았으리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인이 대학을 나왔고 회사를 다니다가 그게 잘 안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게 전부였다.

그의 가족들은 어디에 있을까. 노숙 이후 가족들과 연락을 종종 하긴 했을까.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고인이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후 고인의 조카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전화한 통화 이후 조카는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고 고인은 점점 더 상태가 악화되어 요양원으로 또 다시 옮겼다. 그 뒤 고인은 요양원 생활을 못 견디고 다시 영등포 이 곳 쪽방으로 찾아왔지만 이미 건강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혼자서는 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한 정도였다고 한다. 죽더라도 내 방에서 죽고 싶다며 그간 정이든 이곳을 다시 찾았을 때, 그는 과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까. 하지만 결국 그는 군포의 어느 쉼터로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마지막을 맞이했다.

그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우리는 모두 안타까워 졌다.



▲고인이 생전에 살던 쪽방의 문. 지금은 고만한 형편의 또 다른 이가 주인이다.

하지만 그가 두렵거나 낯설지는 않았다. 나는 내가 영등포 역으로 오기 전 느꼈던 그 무게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때 나는 왜 꼭 무거워해야만 했을까.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들을 만나는 것이 엄숙하고 숭고한 일이어야만 하는 것일까. 그 죽음들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이 단지 떠나간 그들의 시간에 안타까워하고 나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 끝나기 위한 것일까. 그 무게감들은 과연 누가 만들어 준 것들일까. 지금까지 배워 온 학교교육에서, 혹은 텔레비전 등의 매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리 노숙인들의 모습은 왜 늘 거리감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밖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걸까. 우리는 사는 동안 저

마다 주입된 그 무게감들로 인해 곳곳에 스쳐지나가는 그들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저 바쁘게 각자의 발걸음들을 재촉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로 인해 내가 갖고 있던 무게감들로부터 점점 해방되어 가고 싶다. 이것이야말로 설부르게 그들과 내가 모두 같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배우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이다.

그것은 분명 처음 본 광경은 아니다

-이유진 <2012 노숙인추모제 공동기획단, 대학생>

이 글은 지난 12월 10일, 영등포 쪽방촌에서 사망하신 고(故) 김*수님과, 노숙생활 중 사망하신 고(故) 전*록님의 지인들로부터 고인의 생전 삶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작성한 글입니다.

노숙인에 대해 기억나는 첫 번째 인상

아주 어렸을 때, 지하철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다 사람들이 돈을 주지 않자 욕설을 하는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을 확실히 노숙인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그때부터 그저 역이나 사람 많은 거리에서 마주치는, 행색이 유난히 지저분한 사람은 경계해야 할 사람, (구걸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난폭함을 드러내는) '말이 안 통할 것 같은'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 같다.

비슷한 시기 IMF로 인한 수많은 기업들의 도산과 그로 인한, 당연한 가정들의 경제파탄 때문에 TV에서는 서울역에 빼곡히 앉아있던 노숙인들의



▲2011년 종각역 출구가 폐쇄되기 전 모습

모습을 매일매일 보여주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미지는 노숙인들이 (당연하게도)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일정한 직장을 가지고 있던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동시에 환기하고 있었다. 선정적이면서도 무자비하게 남발되었다. 일년에 몇 번 가지도 않던 서울역에 대한 인상 또한 90년대 후반에서 계속 머물렀다.

노숙인에 대한 두 번째 인상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고 다녔다. 하루는 막차시 간대에 텅 빈 지하철 안에서 맞은편 좌석에 길게 누워있던 한 노숙인이 누운 자세 그대로 소변을 보는 것을 보았다. 아마 그가 자는 중이라 했더라도 그 순간에는 잠이 깨었겠지만 그는 전혀 미동이 없었다. 소변 줄기가 바닥까지 흘러 점점 내 쪽으로 오고 있었는데도 나는 자리를 바로 피하지 못했다. 대신 반쯤 팔로 가려진 그 노숙인의 얼굴과 표정을 계속 들여다보려고 노력했다. 잘 보이지도 않았지만 분명 고단함과 슬픔이 뒤엉켜 있었다. 몇 년째 그 장면이 강한 인상으로 남았다. 아마도 IMF 이후 처음으로 노숙인을 '인식'하고, 개인으로 마주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고(故) 전*록 씨에 대한 첫 번째 인상

그 후 반빈곤연대활동을 통해 서울역 근처 동자동 쪽방촌에 방문하고 쪽방 주민들의 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들을 기회가 있었다. 바쁜 일정 중의 짧은 강연이라 나름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같은 해 겨울, 기



▲고인이 평소 주무시던 노숙인시설의 응급잠자리

노숙은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평소 술은 잘 하지 않았고 동료들과 내기 장기를 두고 농담도 잘 건네곤 했다. 가끔 교회에 들러 피아노 연주를 할 때면 옛 모습이 엿보이기도 했다는 그는 올해 가을 급격히 체중이 줄어드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깨닫고 병원에 간 지 한 달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났다. 순식간이다. 동료와 센터 실무자는 가끔 연락을 이어오던 부인과 딸에게 연락이 갔고 장례는 치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날 영등포 인근에서 만난 노숙인들은 ‘구체적인 삶’을 가지고 있었다. 그건 IMF 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다. 어릴 때부터 노숙인을 ‘서울역에

회가 달아 노숙인추모제 기획단의 생애사 인터뷰팀에 함께하게 되었다.

고(故) 전*록 씨는 고(故) 김*수 씨와 함께 내가 처음 이름을 알게 된 노숙인이다. 그는 노숙 전 음악학원을 했고, 피아노 실력이 수준급이었다고 노숙 동료와 쉼터 실무자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노숙 이전의 삶에 대해 묻는 것은 동료끼리라도 쉬운 일이 아니기에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는 2006년 혹은 그 이전부터 거리노숙인 지원기관에서 잠을 청했고 2006년 이후로는 거리

가면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단순히 규정 짓게끔 학습받은 우리 세대나, 아니면 아예 노숙인 자체가 생소한 더 어린 세대들이 노숙인들을 그저 부랑자, 걸인, 일반인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아닌, 함께 사는 사람들로 생각해야 한다. 보증이나 사업 실패, 건강 악화로, 아니면 스스로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거리에 나가는 노숙인들은 원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다. 한때 우리 이웃이었고, 추위에 아파하고 무심코 들려오는 시선과 말들에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름과 삶이 올해도 노숙인 추모제를 통해 잠시나마 기억되길 바란다. 함께 살자!



▲어느 노숙인의 닳고 닳은 신발. 닳고 닳아 너덜너덜한 신발이 그의 고된 삶을 이야기 해주는 것 같다

그는 원래 거기에 없었다

-화신 <2012 노숙인추모제 공동기획단, 인권영화제 활동가>

사회 다수에 속하는 이가 ‘소수자’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특히나 부정적 이미지로 학습 받았고 여전히 그렇게 기억되고 있는 ‘노숙인’을 이해하는 것은 더 그렇다. 주변 친구와 만나 내가 요즘 ‘서울역 노숙인 추모제’에 함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 친구가 생각하는 노숙인의 이미지는 어떤지 물었다. 듣던 중,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 같아” 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다.

‘우리’와 ‘다른 사람’. 그들은 과연 우리와 다른 사람일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먼저 그의 말과 행동과 같은 드러나는 모습에서 그의 맥락을 이해하며 함께 그의 현실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가고 곧 그것이 사회가 된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노숙인들은 이 같은 기본적 관계 맺기에서도 늘 배제된다. 우리와는 다른 존재로 인식되는 그들에게는 심지어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는 사람,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는 표현까지도 늘 당연하게 사용된다.

나 역시도 과거 노숙인에 대한 이미지는 다가가기 두려운 사람들, 어두운 사람들이었다. 그들도 나와 같은 것을 공유하며 살아간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 같다. 우리는 이제 노숙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폭력적인 일반화의 대상에서 벗어나, 일도 하고 사랑도 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개인으로서의 그들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은姑임*균님의 생애를 그의 지기였던 설*석님께 전해들은 이야기이다.

고 임*균님은 핸드백공장의 미싱사였다. 고인은 어려웠던 가정환경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서울로 올라가 공장에서 일을 배웠다.

“아버지가 좀 주눅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가정환경이 저하고 똑같이 안 좋은 거 같아요. 아버님이 술만 드시면 어머니 때리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그때 당시에는 배우려고 해도 환경이 안 좋으면 그러지 못했잖아요. 지금이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 아버님영향도 많이 받고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 와서 사회로 진출한 거 같아요.”

고인과 89년 공장에서 만나 동갑내기 친구로 절친하게 지내다 IMF에 헤어지고, 2004년에 노숙을 하며 고인을 다시 만난 지기는, 유난히 술을 좋아했던 사람으로 고인을 기억한다.

“직장 다닐 때는 다음날 일을 나가야 되니까 소주 한 두병 먹어도 다음날 웃는 얼굴로 같이 일하고 그랬으니까 심하진 않았는데.. 공장 망하고 나서, IMF터지고 나서 뿔뿔이 흩어지니까 술에 의지를 한 거 같아요.”

지기는 고인이 IMF이후부터 완전히 술에 의지한 것 같다고 했다. 고인은 제기동 다리 밑과 빈집 등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내내 술에 의존했었다. 고인의 사망도 술로 인해 간이 완전히 녹아버린 것이 원인이었고, 거리에서 술을 마시다 피를 토한 후 병원에 후송 된지 사흘 만에 사망했다.

“굉장히 좀 안타깝고 (사망 한 달 전) 5월 어느 날인가 봤어요. 근데 간이 안 좋으면 얼굴이 텅텅 붓잖아요. 밥도 안 먹고 내리 술만 먹더라고요.

주변에 파지 주워가지고 (팔아서) 내내 술만 먹더라고요.”

장례는 고인을 애타게 찾던 가족들에 의해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네. 장례는 가족이 있었나 봐요. 가족들이 애타게 찾았던 거 같아요. (중략) 고집이 썬데 자기 처지가 이래서 연락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친구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친구는 집에 전화도 안 했어요. 집하고 몇 십 년동안 담을 쌓은 것 같아요. 나중에 죽고 나서 가족이 장례 치렀다는 거 보니까 연락을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연락하라고 내가 말했을 때도 전혀 듣지를 않더라고요.”

자신을 애타게 찾던 가족에게도 연락하지 않던 고인은 다소 고지식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었다는 것이 지기의 증언이다. 이러한 성격 때문일까. 고인은 오랜 음주로 인한 간경화에도, 의료지원이나 수급지원을 거부한 채 고독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의 지기는 평소, 고지식한 성격 탓에 술을 걸치고 나면 종종 동료들과의 다툼도 있었지만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으로 고인을 추억한다. 지기가 구치소에 있을 때, 일부러 면회를 와 영치금 3만원을 넣어주고 간 것도 고인이었다. 고집이 셀 뿐, 친구를 좋아하고 사람을 그리워 했던 고인.

고인이 술에 더 의존하게 된 것도 노숙 동료였던 절친한 친구의 죽음 때문이라고 한다.

“그 전에 자기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다리 밑에서 여러 명 죽어나간걸 봤나 봐요. 그래서 아마도 자기친구 죽은걸 보고 큰 충격을 받은거 같아요. 그 죽음 때문에 의지할 사람이 사라지고해서 더 술에 의존한 거 같아요.”

또한 지난 5월 지기를 만났을 때, 어머니를 애타게 찾았다고 한다.

“5월 달에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요. 술 한 잔 먹으면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빨리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를 그렇게 많이 찾더라고요. 같이 잠자다가 어머니, 어머니 소리 하는걸 들었어요. 자기는 자기 몸을 아는 거 같아요. 나는 다 살았구나 하는걸. 피 토할 정도면. 근데도 참 미련하게 술을 먹고 토하고 나서 또 먹고 하니까 병원에서는 손을 델 수가 없죠. 의지할 사람이 없다보니까 삶의 끈을 놔버린 거 같아요.”

의존할 사람 없이, 술에 의존하며 반평생을 살아오던 고인. 그를 더욱 회의적으로 만들고 술에 의존하게 만든 것은 그 자신일 수도 있지만, 기술자였던 그를 한순간에 거리로 내몬 자본의 탓일 수도, 고인의 삶의 궤적 따위는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노숙인’으로 치부하며 지내 온 우리의 탓일 수도 있다.



▲자본의 마천루인 서울역 한 복판. 역설적이게도 홈리스들은 이곳에서 바닥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그에게 기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노숙인은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다. 모든 것에는 맥락이 있다. 이제 우리는 노숙인에 대한 배제를 중단하고 그들의 삶의 궤적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가시고기 아빠, 故 이*상님을 기억하며

-박사라 <2012 노숙인추모제 공동기획단, 홈리스행동>

故 이*상님은 죽기 전까지 가족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다.

젊을 때부터 소형 모터 만드는 기술을 가진 그는 30년간 사업을 일궈가며 꾸준히 일해 왔다. 그러던 그에게 2000년 어느 날 청천병력 같은 일이 생겼다. 그의 부인이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다. 평생의 반쪽을 잃어버린 그는 실의에 빠졌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몸도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사업은 점차 기울고, 옆친 데 댈친 격으로 위 일부를 도려내는 대수술까지 받아야 했었다. 더불어 폐까지 안 좋아져서 약을 먹어야 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몸으로는 일하기 힘들어서 일을 그만 두어야 했고, 경제적 상황으로 가족과도 헤어져 살아야 했다. 결국 생활이 어려워지고 스스로는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다는 것을 인식한 그는 지인을 통해 노숙인 쉼터에 입소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간신히 이겨내었던 것이다.

그는 다시 몸이 좋아지면 예전처럼 일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2008년 서울시에서 하는 일자리를 신청했고,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소형 모터를 만드는 기술자의 숙련된 손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었다. 단지 공원에서 담배꽂이를 줍고, 쓰레기 줍는 것이 전부인 단순한 일이었다. 게



▲거리를 청소하는 노숙인 특별자활근로 모습. 노숙인 자활·자립이 목적으로 시행되고는 있지만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의문이다 <출처=다시서기 홈페이지>

다가 급여도 얼마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단지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에 감사할 뿐이었다. 그러던 그에게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하는 쉼터를 벗어나 자활의 집에 들어가는 기회도 가졌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소규모 그룹 홈처럼 6-7명씩 한

집에 살아가는 이곳으로 주거를 옮긴 그는 더 부지런히 살아갔다. 점차 생기를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의 삶은 무언가 다른 희망을 갖게 되었다.

쉼터에서 답답하게 생활하던 것을 벗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생활하게 되자 약간의 여유로움이 그를 찾아왔다. 아침 7시에 나가서 공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12시. 점심을 먹은 후 그는 자신의 시간을 가졌다. 컴퓨터 교육을 받고, 티비로 뉴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또 휴대폰으로는 그가 그토록 좋아하던 야구중계를 자주 관람하며 여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자주 종로3가로 가서 자신처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다른 만남을 통해 삶의 위안을 얻었던 그는 자신의 그늘진 일상에 살며시 다가온 밝고 따뜻한 햇살과 같은 그 잠깐의 시간을 즐겼다.

그러면서 쉼터에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녀들의 존재도 함께 살고 있는 동료들에게 말할 수 있었다. 시집간 딸과 아들이 있노라고. 그렇게 가족과 연락하며 가끔 만나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토록 예쁜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내색은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현재의 것처럼 자녀들도 힘겹게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자식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자기의 아픈 몸보다 더 아프고 찢어지는 마음과 미안한 안타까움이 가득했을 것이다.

그가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일해 왔기 때문에 꽤 많이 돈을 모았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돈은 한 푼도 없었다. 이제까지 일하면서 자신에게 쥐어지는 얼마 되지 않는 급여를 매달 자녀들에게 보내왔기 때문이다. 자신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서 가족이 흩어지고, 힘들게 지내왔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자식에게 미안한 죄 값을 치르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기에 급급했고, 그것이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마치 자신의 몸을 새끼들에게 뜯어먹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고통을 참고 또 참으면서 자식들을 향한 무한한 애정을 보였던 우직한 아빠 가시고기처럼.

故 이*상님과 함께 생활하던 동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한다.

“그 사람은 조용했고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아픈 몸이라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수술 후유증으로 고통스러워서 힘든 일을 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할 일은 충실하게 해내었고, 시간도 잘 지키는 정확한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그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애써 무리한 부탁이나 일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주어진 일을 조용히 감내하고 해내었던 우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녀에게는 그의 모든 것을 주고 편안하게 떠났어요.”

꽤 오랜 기간 아파왔던 그는 평소에 항상 죽음을 의식해서 살았다고 한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날까지 고통 없이 살다가 죽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었다고.. 그래서인지 그의 마지막 모습은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는 자세였으며, 늘 바라던 대로 평온한 표정으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의 동료들은 이야기한다.

30년간 한결같은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부인을 잃고, 자신의 건강도 급격하게 나빠지고, 자녀들과도 헤어지는 큰 고비를 지나, 담배꽁초 줍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던 사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어 했던 사람. 늙고 아픈 나이에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죽는 날까지 자식들을 위해 살았던 사람. 가시고기 아빠 고 이*상님의 장례식이 마치고, 미처 받지 못했던 고인의 마지막 급여는 딸에게 주어졌다.



냉동고에 갇힌 천국

-송윤혁 <2012 노숙인추모제 공동기획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창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다. 어느새 신발 밑창이 눈에 잠겨 젖을만큼 많은 눈이 내렸지만 방 안은 조용하기만하다. 눈은 온 세상을 자신의 색으로 덮어버릴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으나 언제나 조용히 내린다. 가끔 문을 열고 창 밖을 내다보지 않으면 눈이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올 해들어 두번 째 내리는 눈을 보면서 소리 없지만 분명 존재하는 그것이 쪽방촌의 죽음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곳은 한 평 남짓 되는 쪽방. 가난한 이들의 최후 거처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곳. 이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다수가 빈곤하다. 그 누구도 정확한 통계를 낸 적은 없으나 대부분이 기초수급자이거나 일용직노동, 혹은 폐지수거 따위의 노동으로 삶을 이어나간다. 빈곤한 이들의 삶은 자신의 빈곤만큼이나 조용하다. 무언가 왁자지껄한 삶을 위해서는 관계가 필요하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관계가 없으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인지 쪽방촌은 대부분 조용한 편이다. 그 조용함은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그렇고 삶이 끝났을 때도 그렇다. 쪽방촌에서 일어나는 수 많은 고독사를 보면서 쪽방'촌'이 아닌 쪽방 '밀집구역' 정도로 불러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중 그가 죽었다. 그의 죽음도 역시 조용하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 예상은 다행이도 빗나갔다.

사실 고인 오영창씨의 죽음, 그 것은 여느 쪽방촌 주민들의 죽음과 다르지 않았다. 알코올중독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몸에 폐결핵이 왔고 동부



▲동자동 마을 사람들과 함께 치룬 오*창님의 장례식 <출처=동자동사랑방>

시립병원에 입원한지 열흘만에 운명을 달리했다. 찾아오는 가족 하나 없었고 그의 오랜 친구들이 장례를 치러주길 원했으나 병원과 경찰, 구청, 동사무소는 하나같이 그의 시신을 양도할 수 없다고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가족이 생존해 있을 경우 3개월간은 시신을 양도할 수 없다는 답변을 여러 기관에서 반복해 들어야했다. 쪽방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살아 생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생존해 있는 가족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으나 그의 죽음을 통해 남동생이 살아있음이 밝혀졌다. 하나뿐인 혈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쪽방동료들은 시신 없는 장례를 치루기로 했다. 쪽방촌을 돌아다니며 오영창씨의 죽음을 알렸다. 대부분은 그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했다. 가난한 이들의 주머니에서 천원, 오천원, 만원권의 지폐가 나왔다. 어떤 이는 그날 소주를 먹으며 마련해 두었던 천삼백원을 내어주기도 했다. 두어시간 만에 칠십만원의 돈이 모였고 그가 쪽방에 들어오기 전에 노숙했던 동자동 새꿈어린이공원에 빈소를 차렸다. 영정을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고 하니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평소 그가 다녔던 교회의 목사가 와 장례예배를 진행했고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주민들도 이 날 만큼은 목사의 천국과 구원에 대한 설교를 조용히 들었다. 수십명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몰려들자 곧 지구대에서 세 명의 경찰이 찾아왔다. 그들은 공원에서의 장례를 불허한다 통보했지만 쪽방주민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장례예배가 끝나고 음식이 돌고 술이 한두잔 들어갔을 무렵 망인과 가장 친했다던 친구가 인간 오영창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서울역에서 노숙을 했었다. 그것이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

람은 없었다. 다만 여름이면 서울역을 나와 동자동 쪽방촌 맞은편에 있는 새꿈어린이공원에서 노숙하며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고 한다. 싸움이 잦고 사고도 많은 그 공원의 술자리에서 그는 한 번도 남에게 해코지를 한 적이 없었고 가끔은 친구들에게 폭력을 당하기도 했지만 화를 내거나 싫어하는 내색 없이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는 기억했다.

그를 아는 사람이면 그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두 가지를 빼놓지 않았다. 하나는 그가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과 “하루 빨리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가고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는 것이었다. 오영창씨가 쪽방에 들어온 후 짧은 기간 봉사활동을 했던 동네 식당의 운영자는 오영창씨가 정이 많이 가는 사람이었다고 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식당에서 숙식을 하면서 술을 줄이고 일도 꽤나 열심으로 하려고 노력했었다고 이야기했다. 한 달간의 봉사활동 후에는 정식으로 오영창씨를 채용해도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조건부수급자가 되었고 식당을 떠나게 되면서 예전 처럼 술을 먹게 되었다고 했다. 한 달 사십오만원의 급여에서 쪽방월세와 식료품을 사거나면 하루 소주 두 병, 담배 한 갑 살 수 있는 돈이 남았다.

아무리 일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일을 시작하면서 쪽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오영창씨는 여름이면 쪽방 앞 공원에 텐트를 치고 반 노숙생활을 했다. 거리노숙과 쪽방생활 사이의 경계는 모호했다. 그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수급제도란 가난의 굴레에 인생을 가두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수급생활 일 년만에 그의 건강은 몰라보게 쇠퇴했다. 결핵진단을 받은 후 병원으로부터 입원을 하라는 여러차례의 권고를 받았지만 그는 병원생활을 거부했다. 지금와서 그의 동료들은 그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 “하루빨리 천국에 가고싶다”라는 것이 그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했다. 삶의 희망을 빼앗겨버린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동료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던 동료 중 한 사람은 오영창씨가 입원하던 날의 기억을 이야기했다.

몸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누워있을 수조차 없어 의자에 앉아있었던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한 지폐를 몇 장 꺼내 병원에 데려다줘서 고맙다면서 음료수라도 사먹으라고 내밀었다고 한다. 동료는 오영창씨를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던 사람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착했던 그가 입원하자 쪽방의 주민들은 휴지라도 사라며 작은 돈들을 보태 오영창씨에게 전달했지만 그 돈을 다 쓰기도 전에 그는 운명을 달리했다.

그의 시신은 아직도 어느 병원의 시신보관실에 안치되어있다. 살아있을 때 결핵으로 인해 골육이 상접해 있었던 그의 몸은 썩지 않을 정도로 방부처리되어 냉동고에 잠들어있다. 앞으로도 당분간 그의 육신은 이 매서운, 눈내리는 겨울밤보다 추운 곳에 잠들어 있어야 한다. 쪽방 동료들은 시신을 인계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오영창씨가 폐결핵으로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삶의 희망을 앗아간 사회가 죽었다고 고백한다. 쪽방과 거리에서, 희망과 절망에서, 삶과 죽음에서 줄타기하던 그의 인생을 애도하며 또 하나의 오영창이 쪽방촌에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마지막 남은 육신을 정식으로 보내 줄 날을 기다리고 있다.

거리에서, 쪽방에서, 고시원에서, 여인숙에서 수 많은 홈리스들은 고독하게 죽어가고 있다. 단절된 관계는 그들의 주검까지도 무연고시신이라 명하며 냉동고에 안치될 수 밖에 없는 운명으로 만들어버린다. 매년 밤이 가장 길고 어둡다는 동짓날이면 죽어간 홈리스들을 추모하는 추모제가 열린다. 집계될 수 없는 그들의 죽음은 소리 없는 눈처럼 내린다. 관심의 창을 열지 않으면 그들의 죽음은 보이지 않는다. 춥더라도 문을 열고 내리는 눈을 보아야 한다. 영정도 제대로 갖추기 힘든 그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그 날 오영창씨의 영정도 한 칸에 마련 될 것이다. 그 영정을 바라보며 우리는 홈리스의 죽음이 결코 한 순간의 사건이 아님을, 그들의 이야기가 있음을, 그 이야기는 차별과 억압의 이야기임을 생각 할 것이다. 그리고 추모를 통해 홈리스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님을,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음을 이야기 할 것이다.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지향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한 홈리스 당사자를 기리며

-형진 <2012 노숙인추모제 공동기획단, 인권운동사랑방>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누군가의 삶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도 별로 없을 듯하다. 특히, 그 누군가의 삶이 나의 삶과 너무나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을 때, 그 삶의 간격에서 기인하는 부끄러움의 감정은 필자에게 있어 언제나 고통이고 아픔이었다. 아무리 온갖 상상력과 가정들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삶의 간격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누군가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 삶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 못함을 미리 밝히는 것이 필자에게는 습관처럼 되어 버렸다.

필자가 이 글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고(故) 김*조 씨의 삶 또한 그러하다. 더군다나 단 한 차례도 고인과 만나본 적이 없으며 그의 오랜 지기들을 통해 비로소 그를 알게 되었던 필자로서는, 이 글이 행여 고인에게 누(累)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만에 하나라도, 이 글에서 고인의 삶에 대해 일말의 위화감이라도 느껴진다면, 단언컨대 그것은 모두 고인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필자의 잘못이라 하겠다.

고 김*조 씨는 젊은 시절부터 오랜 세월을 거리에서 지내왔다. 올해 50여 세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한 그가 거리 생활에서 벗어나 임대주택이라는 비교적 안정된 주거에서 생활하게 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불과 5~6년 전부터였다. 누군가는 나이 오십을 '하늘의 뜻을 안다' 하여 지천명(知天命)이라 이야기했던가? 고인에게 있어 지천명의 나이 오십은 비로소 미래를 꿈꾸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거리 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에, 고인은 남대문에서 액세서리 상점을 운영하는 점주였다. 그러나 장사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가게를 내놓게 되었고, 이후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 장사를 시작하였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아지게 되면서 결국 그는 거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삶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그는 점차 실의에 빠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 현실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잊기 위하여 찾기 시작한 술은 결국 이후의 그가 평생을 두고 극복하고자 했던 습관이 되어 버렸다.

고인이 거리생활을 할 때부터 서로 의지하며 지내왔던 그의 오랜 지기는 그가 홈리스 당사자 운동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주거지원을 통해 주거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고인의 삶이 점차 변화해 나갔다고 회상하였다. 그 이전의 고인의 삶이 "자포자기의 삶"이자 "단절과 배제의 삶"이었다면, 이후의 삶은 "미래를 그려 나가고 실현해나가는 삶"이자 "의지의 삶"이었다. 고인에게 있어서 안정된 주거, 그리고 동료들과의 연대망의 형성은 그야말로 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거리 생활을 시작하면서 단절되었던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복원되기 시작하였고, 거리에서의 긴 시간동안 몸에 익힐 수밖에 없었던 타인에 대한 경계심과 냉소적 태도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오히려 그는 종교(가톨릭)에 귀의한 것을 계기로, 자신보다 더 열악한 상황의 사람들을 위해 나눔과 연대의 삶을 살고자 하였다.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에의 의지 또한 넘쳐나기 시작하였

는데, 컴퓨터와 글쓰기 학습에서부터 운전면허 취득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 하나의 모든 성취가 고인에게는 커다란 즐거움이요, 변화하는 삶 그 자체였다.

"근래 와 가지고는 참 안정적으로 생활이 많이 변했었어요. 그... 임대주택도 되어 가지고... 여기(홈리스 당사자 운동단체) 와서 진짜 많이 변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친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부터 지금 변한 걸 알잖아요? 야, 그래 사람이 많이 변했다... 자기 스스로가 좀 다스리고 해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오랜 거리 생활의 상흔들은 끊임없이 고인을 괴롭히는 족쇄와도 같았다. 심한 허리 디스크 통증으로 인해 그는 수급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과거 지나친 음주로 인해 몇 차례에 걸친 장 절제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무엇보다 그는 오랜 세월동안 자신에게 각인된 음주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써야만 했다. 이 모든 것이 '거리 생활'이라는 삶의 조건이 만들어낸 상흔들이었다. 그와 가깝게 지낸 또 다른 지기는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과거를 쉽게 털어내지 못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힘들어 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이미 변화하기 시작한 스스로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터무니없이 적은 수급비에 대응하여 더 악착같이 생활하였으며,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알코올 관련 프로그램, 상담, 자조모임에 참여하여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의 삶이 변화하게 된 기반이 안정된 주거와 사람들과의 관계망 형성에 있었다면, 그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동했던 것은 오롯이 그의 의지였다.

고인의 죽음을 그의 모든 지기들이 안타까워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고인은 생전에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다고 한다. 그는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남은 생을 살아가고 싶었다고 한다. 또한 생활이 조금 더 안정되고 나아지게 되면, 자신처럼 힘든 삶을 강요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활동하고 싶었다고 한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의 상흔들을 고스란히 안고 현실에 맞서야 했던 고인으로서의 이러한 바람은 그야말로 꿈 그 이상이었을 테다. 아니, 어쩌면 이는 홈리스 경험자로서, 자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타인의 상처까지 보듬고자 했던 고인과 같은 당사자 주체들만이 소중하게 품을 수 있는 꿈일지도 모른다.

비록 고인의 소중한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분투는 예기치 못한 죽음과 더불어 멈춰버리고 말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은 아니다. 필자는 교인이 아니라서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혹한 현실과 상처들로 인해 힘들어 하면서도 동시에 타인을 향한 삶을 지향하고자 하였던 고 김*조 씨의 삶이야말로, 예수의 삶을 따른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더 나은 표현을 찾지 못하여, 고인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집짓는 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음을 예수님 증거하니, 가난과 결핍, 소외된 모든 이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잘가요, 순덕씨

-이동현 <2012 노숙인추모제 공동기획단, 홈리스행동>

지난 11월 21일, 나는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있었다. 11월 21일은, 1997년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던 바로 그 날이다. IMF의 요구로 인해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고, 신용카드를 통한 내수진작 정책을 편 결과 금융채무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IMF 15년을 맞는 그 날, 우리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피해자의 투쟁으로 빈곤과 채무의 악순환을 끊어내자”는 슬로건을 들고 ‘금융피해자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그렇지만 그 날 한 명의 여성 홈리스가 세상을 떠난 줄은 몰랐다.

주로 서울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나는 생전에 순덕씨를 만나지 못했다. 모자를 쓴, 흑백사진 속의 순덕씨를 봤지만 내 기억속에 있는 얼굴은 아니었다. 순덕씨의 사망소식을 듣고 근 7년 동안 순덕씨를 만나왔던 거리 노숙인 상담원을 만났다.

이름도 나이도 희미해지고

“처음에는 말씀도 잘 하시고 체격도 제법 이렇게 뚱뚱한 편에 속했었어요. (중략) 그런데 나중에는 본인이 몇 년 생인지 몇 살 먹었는지조차도 모르더라구요”

순덕씨는 성인이 되면서부터 노숙을 했다고 한다. 어림잡아도 딱한 20년을 거리에서 살아온 것이다. 평소에는 상담원의 “시집 가야지”하는 농예 쑥쓰러운 웃음으로 답하고, 커피를 마시러 상담소에도 자주 들르고, 뭔가 예쁜 것이 있으면 갖고 싶어하는, 수줍지만 건강한 순덕씨였다. 그러나 작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이름과 나이

를 분간하기조차 어려워졌다. 한뼉잠이 신체의 건강을 갉아먹는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만 하다. 그러나 노숙생활이 정신적인 건강마저 해친다는 것은 연상하기 쉽지 않다. 지난 2006년, 영등포역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압사한 고(故) 김*기씨 역시 그랬다. 전화상으로 만난 고인의 누나는 이렇게 말했다.

“고등학교도 채 마치지 못하고 생산직 공장을 다니다 IMF때 잘렸어요. 그 후 집에서 2년간 일자리 다시 구한다고 있는데, 동네 어른들 손가락질이 심했죠. 시골이라 동네가 좁으니까. 결국 서울에 올라가더니 노숙을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우리처럼 정상이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정신에 문제가 생겼더라구요. TV에서 뉴스는 봤지만 난 그게 동생 일거라고는...”

순덕씨도 그랬다.

비밀 언덕이 없었다는 게

순덕씨는 어떻게 노숙대열에 들어왔을까? 순덕씨는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그렇게 시설에서 생활하다 성년이 되어 사회에 나왔다. 사회에 나오자마자 순덕씨는 무슨 공장엔가를 다녔다고 한다. 무엇을 만드는 공장이었는지, 월급은 얼마를 받았는지, 어떤 것이 힘들어 공장에서 나오게 됐는지는 전혀 모른다. 그러나 상담원은 순덕씨에게 비밀 언덕이 없었다는 게 제일 큰 어려움이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공장같은 데 다닌 거 같아요. (중략) 그런데서도 도태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족이 있었으면 돌보고 그랬을텐데 돌 볼 수 있는 가족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상담원은 순덕씨가 등록 장애인인 아니었지만 경미한 지적 장애가 있어 보였다고 한다. 그런 그녀가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은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순덕씨는 말도 마음도空空 달은 채 한뼉 생활을 견뎌왔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아예 말 자체를 안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등포역은 동서를 잇는 통로 구실을 하는 구조의 특성상 문을 닫지 않는다. 그덕에 잠자리 잃은 홈리스들은 그곳에서 잠을 청할 수 있다. 그러나 순덕씨는 그곳을 선택하지 않았다. 상담원들은 역사 내 통로에서라도 밤을 보낼 것을 권했지만, 순덕씨는 계단참에서 잠시 온기를 얻고는 금새 자리를 떴다. 그녀는 주로 영등포역 주변의 공원이나 공터에서 생활했다. 그러다 관리인들에 의해 쫓겨다면 다른 공원, 나대지로 잠자리를 옮기곤 했다. 그녀가 주검으로 발견된 고가 밑 공터 역시 그렇게 선택한 그녀의 은신처였다.

‘순덕’은 본명이 아니다. 다른 상담소 상담원들이 붙힌 이름이다. 평소, 이름도 나이도 말하는 법이 없자 말도 없고 착하기만 하다는 뜻에서 ‘순덕’이라 이름 붙혔다 한다. 그렇게 박*경씨는 영등포 일대에서 순덕이로 불렸다.

“만약에 잠바가 필요하다 그래서 잠바를 하나 주면 그 다음에는 안 받아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받아라 그러면 이거면 됐다고 더 이상 받지를 않아요”

평소 순덕씨가 살아왔던 방식이다. ‘기대’, ‘욕심’, ‘희망’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 보였다고 한다. 언제부터 실패와 절망이 학습됐는지 모른다. 고아원 시절부터였을지, 숨가쁘게 돌아갔을 공장생활에서였을지, 20여년이나 이어졌을 노숙생활에서였을지 모른다. 어쨌든 최근의 순덕씨의 모습은 요구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없는 그냥 순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주변인들은 기억하고 있다. 계절이 바뀔 때 옷 가지 한 벌, 여성 용품이 필요할 때 한 번... 이런 식이었다.

빈소라도 있었으면

순덕씨의 죽음도 그랬다. 아프다는 신음도, 한 줄짜리 유언도 없이 주검

으로 변한 채 상담원들에게 발견되었다. 허리 높이도 안 되는 주차장 둔턱이었던 그녀의 잠자리, 그 바로 밑 바닥에 떨어진 채 그녀는 주검이 되었다. 11월 21일, 새벽 2시.

“빈소라도 마련돼 있으면 한 번 가서 명복을 빌어주고 싶었는데...”

빈소는 없었다. 가족은 애초부터 없었다. 모 병원 영안실로 들어갔지만,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할 것이라 했다 한다. 결과는 모른다.

순덕씨는 그렇게, 그나마 유일하게 친하게 지냈던 상담원과의 인사도 없이 혼자서 떠났다. 인터뷰를 마치고 찾은 그녀의 마지막 잠자리엔 아직도 그녀가 쓰던 이불과 옷가지가 유언마냥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과연 어떠한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던 것일까? 혹여, 짐 질 수 없는 고단한 인생을 그녀 개인에게 오랫동안 맡겨 둔 채 말을 걸 시기를 놓쳐 버린 것은 아닐까...



▲망인의 노숙 장소이자 사망장소. 아직도 고인의 이불과 가방 등 변변찮은 생활집기들이 그대로 놓여있다.

평범하고 싶었기에 치열했던

-최윤정 <2012 노숙인추모제 공동기획단, 대학생>

우리 사회는 홈리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홈리스는 자립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불성실한 자들이며, 사회에 폐를 끼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편견이다. 사회에 만연한 편견들처럼 홈리스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일까? 고인이 된 김*씨의 생애를 주변분들과 인터뷰하며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일뿐이라는 생각을 가졌다. 아니, 김*씨는 우리보다 더 건실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었다.

김*씨는 홈리스 생활 이전에도 이후에도 성실한 사람이었다. 대리석 공장과 신문 보급소를 운영하며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갔다. 문제는 IMF이었다. IMF로 인해 김*씨의 사업은 도산했다. 사업실패를 잊기 위해 그는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고, 가족과도 소원해졌다. 유일한 가족인 딸마저 그의 알코올 의존 때문에 연락을 단절했다.

IMF로 인한 사업 실패와 그로 인한 알코올 의존은 적잖은 홈리스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같은 단계를 밟아 온 김*씨는 홈리스가 된 이후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쉼터에 들어와 다시 살아가려는 길

을 고민하던 김*씨는 회사 택시를 몰고 있던 쉼터 동료의 소개로 회사 택시를 몰기로 결정한다. 술을 마시면 운전을 못한다는 생각에, 술도 끊고 가족과의 재결합이라는 목표도 이룰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였다고 한다. 과거, 택시 기사를 했던 경험도 한 몫 하였다.

김*씨는 성실했다. 회사와 쉼터의 거리가 멀어 회사 근처 고시원을 잡아 살아가며 택시를 몰았다. 그는 성실하게 번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쉼터에서 저축 관련 상담을 받아가며 꾸준히 저축을 했다. 택시 사납금, 자동차 보험금, 연금 보험금을 떼면 얼마 되지 않은 수익이었지만 저축을 이어나갔다. 오천만원 정도의 돈을 모아 개인택시를 몰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연말마다 쉼터에서 뽑는 저축 왕이 되어 희망 플러스 통장 대상으로 뽑혔다. 희망 플러스 통장은 작년에 국가에서 실시한 제도로, 예금을 부으면 삼년 후 원금의 100%를 함께 받는 제도다. 1,750만원 가량을 저축한 그는 3,5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은 김*씨의 저축도, 꿈도 모두 거두어갔다.

김*씨는 사업 실패 후 알코올 의존으로 인해 고혈압 등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잠까지 줄여가며 성실하게 일을 했다. 하지만 과도한 열심이 독이었다. 부족한 수면은 혈관을 수축했고, 그에게 뇌경색을 몰고 왔다. 결국 그는 업무 도중 쓰러져 구급대에 실려갔다. 그러나 의술에 기대기에 그의 병은 너무 중한 것이었고, 병원은 김*씨의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병원에서 이틀, 요양병원에서 이틀... 죽음은 그가 달려온 삶처럼 쉴 새도 없이 빠르게 닥쳐왔다.

김*씨의 삶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성실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주위의 사람들보다 더 성실한 삶을 살았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열심있게 했을까? 그는 딸과의 합가를 기원하며 자립을 시도했다.

침터에 들어온 후 알코올 의존으로 인해 떠나간 딸에 대한 미안함과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부여잡고, 중독과 흡리스 상태에서 일어나도록 부단히 노력했다.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은 아니었다. 짬을 내 침터에 들르는 날이면 침터 동료들을 위해 담배 값, 음료수 값을 조금씩 찔러주었다. 건설 일용노동을 나가야하는데 작업화가 없던 동료에게 직접 작업화를 사다주기도 했다. 택시 기사일을 제안했던 한 동료는 그를 천성이 그런 사람으로 기억했다.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어려운 동료들을 챙기곤 했던 따뜻한 사람.



▲어느 노숙인의 열기설기 엮은 배낭, 그러나 한 번 무너진 삶은 복구되기에 훨씬 눈물겨운 댓가를 필요로 한다

“방 사람들과 나눠 드세요”라며 얼마 전 내밀고 간 굴한 박스는 그가 동료들에게 남긴 마지막 선행이었다.

김*씨의 삶은 ‘사업 실패’, ‘가족에 대한 사랑’, ‘성실’, ‘약자에 대한 인정’이 골고루 버무려진 채 이어져왔을 것이다. 다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조금 더 굴곡졌고, 그렇기에 조금 더 노력해야 했다는 점이다. 사회가 그를 ‘노숙인’라는 단어로 규정했다는 사실만 빼다면, 그 단어 속에 스민 부정과 질타만 빼다면 말이다.

빛을 남기고 꺼진 등불

-최윤정 <2012 노숙인추모제 공동기획단, 대학생>

추모제를 준비하며 고인이 된 여러 흡리스들의 생애를 인터뷰했다. 그 중 윤*훈씨는 나에게 조금 더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가 지냈던 침터의 복지사는 윤*훈씨에게 남기는 추모사에서 그를 등불로 묘사했다. 세상 가장 어두운 곳에서 홀로 빛을 비추는 등불. 윤*훈씨는 이런 등불과도 같은 삶을 살다갔다. 비록 소중한 등불을 다 태우기도 전에 삶을 마감했지만 그가 비추었던 불빛은 아직도 남아 우리 사회를 비추고 있다.

윤*훈 씨는 심한 정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남부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그가 원하지 않았던 시련들은 계속해서 그를 급습했다. 잦은 실패는 쌓이고 쌓여 그에게 우울증이라는 큰 상처가 되었다. 결국 그는 집을 나와 거리에서 노숙을 하다 지난 봄 침터에 입소했다.

그는 가장 어두운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매달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을 받았지만 심한 우울증은 이따금씩 그를 급습하여 그만의 어두컴컴한 세계로 몰아넣었다. 그렇지만 그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다. 침터 생활을 하며 인근 장애인복지관에서 서울 지역 공동체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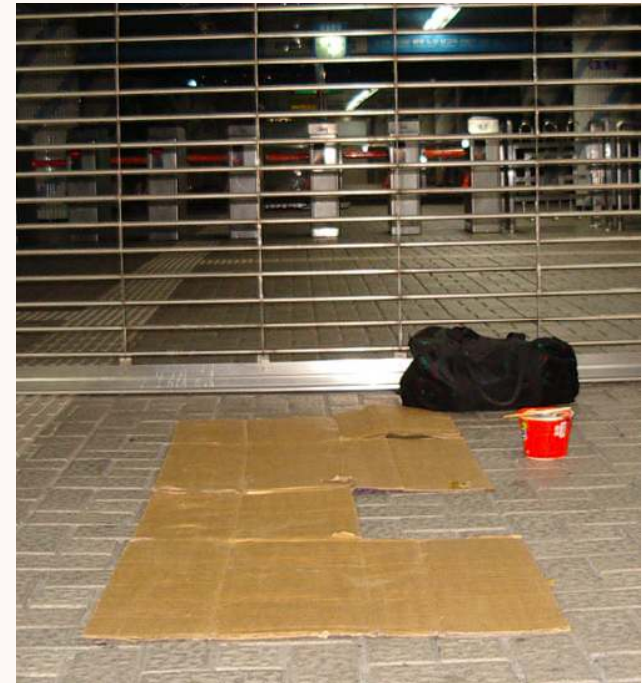
의 일환으로 장애아동 도우미로 일 했다. 그에게 장애아동을 보살피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장애 아이들을 친동생, 친자식처럼 보살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을 시작하며 그는 한 번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좋지 않은 인상이 장애아동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우울증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늘 웃고 있었다. 윤*훈씨는 지난여름 장애인복지관의 장애 아동들과 제주도에서 놀러 간 적이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장애 아이들과 찍은 사진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행복하다는 내용의 멀티메세지를 쉼터 사람들에게 보냈다. 타인에게 한 줄기 빛이 됨으로써 그는 진정으로 행복해 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불현듯 급습하는 우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다. 그는 한 모텔에서 약물과다복용으로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끝내 목을 매었다. 윤*훈씨의 주위 사람들은 죽음으로 소중한 등불이 다 타기도 전에 등불이 꺼졌다고 애통해한다. 하지만 윤*훈 씨의 등불의 빛은 그의 죽음으로 인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아직도 그가 남긴 등불의 빛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일깨워 준다. 그의 죽음은 홈리스 쉼터의 안타까움 현실을 보여준다. 인터뷰를 응해주신 쉼터의 복지사는 윤*훈 씨 정도의 심한 우울증이라면 약물 복용뿐만 아니라 의사와의 상담과 자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체계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약 복용은 일시적인 약 효과밖에 내지 못하고, 점차 약 복용 자체도 우울증의 연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윤*훈씨는 꾸준히 약물을 복용했지만 주위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다. 입소인원이 300명이 넘는 쉼터에서 개인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사들은 이점을 아쉬워했다. 윤*훈 씨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주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복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입소인원

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복지사의 수와 열악한 환경이 문제였던 것이다.

윤*훈씨의 죽음이 단지 안타까움만 남겼던 것은 아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과 웃음으로 함께하려 했던 그의 태도는 윤*훈씨 주위의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윤*훈씨가 남긴 미소는 그의 주위 사람들에게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의 미소가 우리 사회 전체에 남아 홈리스들의 복지와 홈리스를 바라보는 세상의 편견에 한줄기 빛이 되었으면 한다.



▲네 귀퉁이조차 변변치 않는 한 홈리스의 잠자리. 노숙에 이르기까지 겪는 충격과 열악한 노숙환경은 육체 뿐 아닌 여러 정신적인 손상을 유발한다.

17년 동안 쪽방에서의 삶, 이제는 볼 수 없습니다.

-송윤혁 <2012 노숙인추모제 공동기획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강*오님이 처음 동자동에 들어온 것을 주변 주민들은 17년 전 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자동 쪽방촌에 들어오기 전에는 서울역 서부역 인근에 있는 작은 쪽방촌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어디에 살았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강*오님과 친하게 지냈던 몇몇 지인들은 그가 이북출신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16살 이던 해 6.25가 발발했고 인민군에 징집되어 전쟁을 치르다 월남했던 것입니다. 강*오님의 주변사람들은 그가 서울에 정착한 후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젊었을 시절 종로에서 김두환 같은 건달들의 심부름을 하며 지내왔고, 기초수급자가 되기 전에는 길거리에서 자그마한 좌판을 펴고 생계를 이어나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좌판에서 팔았던 물건은 때로는 옷, 때로는 야채였습니다.

동자동 쪽방촌에서 그가 살던 방은 지하방이었습니다. 빗줄기 하나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강*오씨는 배우자, 그리고 곰순이라 불리는 개와 생활했

습니다. 그가 동자동에 이사 왔을 당시 주변 사람들은 그가 매우 건강했다고 기억합니다. 어떤 주민은 그의 성격이 '한 성격 한다'라고도 하고 다른 이들은 '깁빱했다', '대나무 같았다' 라고도 이야기 합니다. 다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 없이 기본적인 성품은 참 좋았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이었습니다.

강*오님과 배우자인 조*분님은 두 사람 모두 한글을 몰랐다고 합니다. 한 주민은 두 분이 글과 숫자 보는 일에 익숙치 않으셨기 때문에 본인이 수급급여가 나오는 20일 마다 강*오씨의 통장을 받아 수급비를 출금해서 전달해주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급비가 나오면 강*오씨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곰순이의 먹이를 사는 것 이었습니다. 곰순이의 먹이는 보통의 개사료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곰순이의 먹이로 쇠고기를 샀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번에 30근 정도 되는 양의 고기를 한꺼번에 사서 나누어 삶아 곰순이를 먹였다고 합니다. 강*오씨의 거동이 불편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는 같은 황해도 출신의 동생(주민)이 매 달 고기를 이고, 지고 왔다고 합니다. 부부의 급여는 매 달 60만원 가량 이었는데 곰순이의 먹이를 사고 나서 남는 돈으로 강*오씨와 조*분씨는 한 달의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지인들은 처음 그런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월남하여 자식 없이 외롭게 살아온 그의 삶을 알고는 곰순이를 강*오씨의 아들로 불렀다고 합니다. 언젠가 조*분씨가 없는 상황에서 강*오씨가 쓰러졌을 때 곰순이가 크게 짖어 사람을 불렀던 일은 동자동 9-19번지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수급자의 생활이 단조롭듯, 강*오님의 삶도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곰순이를 산책시키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지인들을 만나 막걸리를 한 사발 마시고 곰순이 먹을 고기를 녹여 삶고 자신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술을 즐겨마시던 그는 건강했을 때는 동네 공원에서 지인들과 함께, 거동이 불편하면서부터는 방에서 홀로 매일 막걸리를 서너 통 마셨다고 합니다.

강*오씨의 방은 지하였는데 여름에는 계단을 통해 흘러들어온 빗물과 누수로 인한 물이 방에 흥건하여 같은 건물 1층에 살았던 지인이 함께 물을 푸고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방수페인트를 바르고 했으나 강*오씨의 나이만 큼이나 오래 된 건물은 장마철마다 노부부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2000년 중반만 해도 한 달에 15만원이었던 그들의 작은 방은 그가 죽기 전에 월 19만원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호적상 자식이 없었고 기초수급을 받았으며, 몸이 불편했던 그들은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낡은 건물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생소한 동네에서 생소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 보다 가까운 곳에 친구들을 두고 살아가고 싶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조건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부부는 우애를 잃지 않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동자동 쪽방의 건물 내부 모습. <출처=동자동사랑방>

2012년 여름 조*분씨가 갑작스럽게 쓰러지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강*오씨는 부인의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주변사람들은, 조*분씨가 투병생

활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강*오씨의 극진한 간호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병원에서 함께 지내다시피 하다 곰순이의 먹이를 챙겨주기 위해 잠시 집에 온 강*오씨는 술을 한 잔 하고 계단을 오르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치료하러 갔던 그는 그 과정에서 큰 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간암 말기, 폐암 말기, 당뇨에 고혈압까지. 어찌 손을 쓸 도리가 없었던 의사들의 말대로 강*오씨는 입원 3주 만에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쪽방주민들은 강*오씨가 처음 이사 왔을 때의 모습이 기억난다고 합니다. 단단한 체구에 큰 목소리, 소란스럽지는 않지만 마냥 암전하지만은 않은 모습.

찾아오는 가족이 없어 시신을 냉동고에 안치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쪽방에 사는 지인과 강*오씨가 생전에 다니던 성당사람들이 강*오씨의 장례를 빈소 없이 치렀습니다. 그의 죽음을 입원하고 있는 그의 부인은 아직 모릅니다. 치매로 인해 건강이 쇠약한 그녀가 남편의 죽음을 알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친구들의 판단으로 당분간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강*오씨가 키우던 17살 곰순이는 더 이상 돌봐줄 사람이 없어 주민들이 안락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제 동자동 쪽방촌에서는 더 이상 곰순이와 산책하는 강*오씨를, 강*오씨의 다리사이를 빙빙 도는 곰순이를 볼 수 없습니다.

허물어져야할 건 그의 삶이 아니었다

-이동현 <노숙인추모제공동기획단, 홈리스행동>

남편인 故 김*수씨와는 중매로 만났다. 남편은 결혼할 당시 직장인이었지만 결혼 후 사업을 시도했다. 결국 그것이 살림의 기반을 흔들었고 적잖은 기간을 별거해야만 했다. 다시 합가한 중년의 김*수씨 부부는 김포 양곡으로 내려갔다. 남편은 김포에서 제법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았다. 건축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성실했는지 남들 보다 매운 손을 가졌는지 표창까지 받아왔다. 소원했던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풀어졌다. 김포 집은 어느새 시댁 친지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시부모님의 장례도 직접 치렀다. 젊었을 적의 고통은 그렇게 보상받는 듯했고, 중년의 신혼은 무탈하게 황혼까지 흐를 줄 알았다. 그러나 김포 역시 IMF의 안전지대는 아니었다.

집이 지어진 만큼 삶은 무너지고

부인은 건축을 잘 모른다. 남편 김*수씨가 집 짓는 사람이고, 현장 소장이었다는 것 정도만 알 뿐이다. 살림이 좀 편해졌다 싶은 지 2년이 지날 때 IMF가 찾아왔다. 그리고 무엇이 잘 못 됐는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일이 생겼고, 그 책임은 원청이 아닌 현장소장, 즉 남편이 해야 했다.

“건축하다가 IMF오는 바람에 손해 굉장히 보고는 거지되다시피 했죠... 노가다 소장으로 좀 괜찮게 2년 정도 지내다가 빈털터리가 돼 버렸어요.

손해배상은 소장이 책임지잖아요”

그 후로 남편은 몰라보게 무능해졌다.

“없이 사니까는 누구 소개로 파출부 나갔어요. 식당가 많잖아요. 아는 사람 소개로 해 가지고 방도 싸다고 하니까는...”

그때부터 부인은 파출부 일을 나갔다. 어차피 김포에는 더 머물 수 없었고, 파출부 일을 찾아 흘러들어온 곳이 영등포 쪽방촌이었다. 남편은 열심히 집을 지었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대가는 손해배상과 채무로 돌아왔다.

회한 뒤에 찾아온 마음의 병

남편은 미안해했다. 그리고 그 미안함은 정신을 병약하게 했다.

“나 고생시켰다고. 그 소리만. 미안하다고 하고. 다른 소리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어디가면 돈 받을 거 있다고. 몇 억을 준다나 몇 십 억을 준다나? 그래서 처음엔 곧이 들었는데 말이 발란스가 안 맞구나... 그러는 게 점점 심해졌어요”

“억울하단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때, 우리 망했을 때 사기도 많이 당했는데 그게 너무 억울하다고, 주로 자기 한탄 그런 거 많이 했지...”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노련치 못함은 허공에 댄 탄식이었지만 결국 그의 정신과 육체를 갇아먹었다. 그 뿐만도 아니었다. 잘 나갈 때 가까워졌던 친지들과의 관계는 다시 남남으로 되돌아섰다. 의지할 곳은 쇠잔한 자신과 이미 너무 큰 짐을 지고 있는 아내밖에 없었다.

“우리가 사업하다 쓰러지니까 다시 왕래가 딱 끊어지더라구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우린 손 내밀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러니까 병이 왔죠. 삭이지를 못 하니까”

그렇게 쌓인 원한은 금세 치매로 나타났다. 결국 남편은 교회의 도움으로 요양원에 들어갔다. 그리고 일 년하고 두 달만에 남편은 세상을 떴다. 그의 형제, 자매는 아무도 빈소를 찾지 않았다. 그나마 동네 교회에서 장례를 도맡아 송별 의식은 치를 수 있었다.

사람은 떠나도 빛은 남아

남편은 예전부터 먼저 세상을 뜨고 싶었다.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라 유난히 병약했던 아내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맨날 나 보면 몸 약하다고. 내가 당신 앞서 가야되는데... 농담처럼 그랬는데... 그래도 주인 아저씨(남편) 먼저 돌아가셔서 천만 다행이에요. 그런 사람을 누가 돌 봐 주겠어요. 말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

남편을 보낸 후 부인은 더 이상 파출부 일을 나가지 않는다. 돈을 벌 이유가 없어서는 아니다. 이제 그녀도 칠십 줄에 들어서 더 이상 불러주는 곳이 없다. 그녀는 이제 한 달 사십 만원 받는 생계비에 온전히 의탁한 채 생활한다. 이십 만원 하는 월세를 내면 살림하기 빠듯하지만 그마저도 다 그녀의 것은 아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의 뒷 모습이 그렇듯, 남편은 도산과 함께 많은 빚을 떠 안았다. 그렇지만 집 지을 때 그랬듯 빚만은 차근차근 갚아나갔다. 하지만 빚을 다 청산할 만큼 남편의 생은 길지 않았고, 삼 백 만원이 넘는 빚은 그녀에게 고스란히 상속되었다. 지금도 다달이 빚을 갚고 있다. 이십 만원 남는 돈으로 조금씩 빚을 나눠 갚으며 남편이 남긴 숙제를 이어간다.

“이젠 돌아가셔서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깐 원망도 많이 했지. 많이 갚아가지고 삼백 얼마 남았는데 내가 백 얼마 물었어요. 이백 남은 셈이지.



▲김*수씨가 부인과 함께 살았던 영등포 쪽방 동네

달달이 이년을 더 끊어야지. 신용불량자 돼 갖고 내가 뭘 할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할 거는 없지만...”

한 번은 너무 힘에 부쳐 해당은행의 자선과란 곳을 찾았다고 한다. 나이도 먹고 चु고 하니까 파출부로도 안 써 준다고, 빚을 못 갚겠다고 큰 맘 먹고 따졌다고 한다.

“그래도 조금씩 갚으라고. 법대로 막 한다니 어찌나. 난 그런 소리 막 들을 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리는데...”

외로움에 빛까지 떠 넘기고 간 남편이다. 그러나 낯선 방문객을 마주한 채 전한 남편에 대한 송사는 따듯했다.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백년해로는 못 살았지만은 가는 끝까지 내가 지켜주고 해서 마음이 놓이고... 지금 현재는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있을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놓여요”

이렇듯 원망기 하나 없는 인사가 가능한 것은 생의 전성기였던 김포를 떠나 친척들과 등을 돌려야했던, 사람은 가도 빛은 영원한 이 현실이 결코 남편의 탓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